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나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별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다. 학력이라야 고작 고등학교 졸업. 12년 동안 나를 특별하게 귀여워해 줬던가 사랑해 준 선생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키가 작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런 아이였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런데 어른이 돼 교직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름 아닌 김기평 선생님. 그분은 내 고등학교 시절인 광주사범학교 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셨던 분이다.

1979년 30대 초반의 나이로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부터이다. 그 학교로 내가 갈 수 있었던

마당을 쓸었습니다

것도 선생님의 추천 덕분이었다. 선생님은 당시 광주교육대학의 교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 주셨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흘렀다. 나는 선생님을 지근거리에서 만나면서 인생의 후반기 많은 교훈을 얻었다. 먼저 은유한 성품이다.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도 말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든 겸허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였다. 몸이 뻔 인품이었다.

그 다음은 호학(好學)과 성실함이었다. 선생은 65세로 대학에서 정년 퇴임하신 뒤 26년 동안 혼자서 공부해 중국의 고전인 사서삼경을 완역, 주해서를 출간하시기도 했다. 인생 후반부의 삶과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 주신 실례다.

그리고 무욕의 삶이다. 선생은 식사나 일상생활, 대인관계에서도 일말의 사심이 없었고, 무엇이든지 줄여서 조그만 인생을 사시려고 애썼다. 그리고 부지런하셨다. 90대에 들어서 시력이 극도로 나빠지신 후에도 선생은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시면서 부지런히 사셨다.

어쩌다 선생님 댁을 방문해 보면 무슨 일이트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책을 읽지 못하니까 정원의 꽃들을 살핀다든지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꾼다든지, 그런 일로 소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틈이 나면 몽당비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와 도로를 쓸기도 하셨다.

나의 대표작 가운데 한 편이기도 한 '시'라는 작품을 쓴 것도 선생님께서 받은 영감 덕분이다. 대문 밖 도로를 쓰시는 모습이 나에게 그렇게 잔잔한 감동일 수 없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틔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2009년 내가 광주문화원장이 돼 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셨을 때 선생님은 흔쾌히 수락하시면서 나의 강력한 후원자가 돼 주셨다. 해마다 1월 초순이면 어김없이 후원금을 들고 원장실로 오신 선생님은 조용히 돈을 놓고 가시면서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는 말라고 당부하시곤 했다. 액수도 적지 않았다. 어느 해는 백만 원

을 주시고 어느 해는 이백만 원을 주기도 했다. 일단 돈을 주셨다면 선생님의 기준은 백만 원이었다. 노인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아쩜 그렇게 배포가 크신지 번번이 놀라는 바가 있었다.

2017년 7월 문화원장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이 있던 날, 나는 비로소 해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생님'이 바로 그 분임을 알렸다. 그 자리에도 선생님은 와계셨다. 이미 90대 중반의 노인이시라 지팡이에 의지하고서도 파님과 사위 되는 분의 부축을 받고 계셨다.

왈칵 눈물이 솟았다. 문화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마음에 와닿아 그랬다. 그로부터 3년. 선생님은 건강이 아주 안 좋아 힘들어지셨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됐다. 놀라운 일이다. 내 생전에 100세 되신 분을 가깝게 뵈다니!

비록 나는 정식으로 학교 다니던 시절 학생으로서 선생님들로부터 두루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학교를 떠나 어른이 돼 살면서 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기쁘게 생각한다. 선생님과과의 아름다운 인연에 감사한다.

종교칼럼

가을 풀벌레 소리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새벽 예불을 나가려고 방문을 여니, 가을 풀벌레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두웠으나 귀로 듣는 세상은 풀벌레 소리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가을 풀벌레 소리는 여름이 가장 치성할 때 시작되는 법. 그것은 다반장마가 끝났다는 신호일 뿐이다. 긴 장마 끝에 듣는 풀벌레 소리라 웅당 반가워야 할 터인데,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증심사도 이번 장마를 피해갈 수 없었다. 장마가 끝난 다음 날, 증심사 식구들은 수해 복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마도 오전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들 동안 정말 무지막지하게 퍼부는 것이 무색하게 너무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햇살이 반짝였다.

긴 장마 끝에 찾아온 영롱한 햇살. 그러나 그 순간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가즈스렵다'였다. 하늘이 정녕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병든 지구의 몸부림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엄청난 수해 소식을 접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새삼 실감했다. 이제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실천에 나설 때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당사자가 되자 마음의 평정을 잃었다.

조금 전까지 일상을 꾸려가던 곳이 뉴스에서나 보던 수해 현장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하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하는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일들이 산대미인이라 작심하고 분노할 여유도 없었다. 원망과 분노는 느낄 듯 말 듯 희미하게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왜 나는 잠깐이긴 하지만 마음의 평정을 잃었을까? 왜 나는 하루 아침에 집을 잃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들의 불

행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닥친 불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정하고 싶지만,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이다. 같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나와 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내 집에 불이났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사람은 없다. '강 건너 불구경'도 '내로남불'과 같은 맥락이다.

중생들은 하나같이 '나'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 항상 '나'라는 색안경이 보는 대로 세상을 보고 또 본 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보고 행동하는 세상이 바로 '내로남불'이고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는 곧 세상에서 '나'가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 즉 중생심이다. 중생들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사랑과 미움으로 점철된 삶을 산다. 중생심이 없다면 이런 번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평상심이 도'라 하였다. 나무하고 밥하고 불 때는 일들, 먹고 자고 걷고 말하는 일련의 과정들.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

르는 이 일련의 흐름을 편이상 '나'라고 할 뿐이다. 거기 어디에도 희로애락에오욕은 없다. 이들 모두 중생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며칠 전, 무심한 아침 햇살을 보며 괜한 원망을 쏟아부은 것도 내안의 중생심이었다. 중생은 '나'라는 허깨비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다름없다.

병든 지구를 살리는 일은 중국과 일본의 수해를 보며 지구를 살릴 대책을 잠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수해를 당했다고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때가 되니 가을 풀벌레 소리가 우리를 반긴다. 지구는 비록 깊이 병들었지만 평소와 다름없다. 패악질만 하는 인간들에게 진저리날 만도 한데 그저 무심하다.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가을 풀벌레 소리를 선물할 때, 지구는 평상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구를 보며 중생심으로 휘둘리는 자신을 돌아본다. 오늘 새벽 마음이 무거웠던 건 지구에 대한 미안함과 뜻난 자신을 참회하는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다. 세상이 변했다. 마음 다스리기는 더 이상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병든 지구를 살릴 수 있다.

기 고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박재민 전남증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지난달 천안과 창녕에서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들 사건 이후, 국회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부주한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과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동 보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은 환영하지만, 한편으로 재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한 '2018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

만 4604건이다. 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 비율은 76.9%, 재학대 비율은 95.4%에 이른다. 따라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외에 제도권 안에 들어온 학대 행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그리고 재학대 위험이 소멸할 때까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는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개입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한다. 필자는 지난 9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서 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학대 가정에 특화된 사례관리 계획과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는 아동이 스스로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근본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마다 사

회·경제 상황이 다르고 학대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증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외에 제도권 안에 들어온 학대 행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학대 행위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 아동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원의 상담 및 교육은 방임 가정의 부모가 집을 청소하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나도록 만든다.

국네이버스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서비스를 받은 가정의 재학대율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46.3%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

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1인당 월 평균 64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32건과 비교하여 2배 많은 수준이다.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2019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률은 28.5%이며, 평균 재직 기간은 2.8년밖에 되지 않는다.

아동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학대 관련 업무 특성과 사례 관리 연속성 확보를 고려할 때, 상담원의 처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담원 1인당 적정사례 수를 관리하여 학대 행위자와의 접근성을 더 높이고 궁극적으로 재학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표된 '포용 국가 아동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 현장 조사 업무가 공공으로 순차 이관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더욱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21대 국회에서는 아동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전문적인 사례 관리의 제도적 보완이 정책에 반영되어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코로나 2차 대유행 이번 주말이 고비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째 세 자릿수에 달한 가운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전남에서도 진도·영광·나주에 이어 어제는 순천·광양·곡성에서 네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벌써 50번째 확진자까지 나왔다.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이유는 전국적인 집단 감염원인 서울 사랑제일교회 접촉자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광화문 집회에 광주에서 버스 한 대, 전남에서 버스 여섯 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역 감염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잠복기를 감안할 때 이번 주말이 2차 대유행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그제 상무지구 유흥업소 방문자, 수도권 교회 방문자,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영록 전남 지사도 오늘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 중인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30일까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고발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는 이번 주말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고비가 될 것이란 얘기가 된다.

관계 당국의 선제적 조치와 방역은 당연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 안전 대책 절실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폭염이 무려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짙둥더위 때문에 이 기간 100명을 웃도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33도가 넘는 기온으로 폭염특보가 10일째 이어졌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광을 37.7도, 순천 황전 36.3도, 구례 35.3도, 곡성 옥과 34.8도, 광주 과기원 34.8도 등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125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네 명이 숨졌다. 폭염 기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광주지방기상청의 예보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택배 노동자나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그늘·휴식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이 작업장에 권고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노동 당국은 이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열사병 예방 수칙을 재점검, 30분 근로 30분 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 냉방기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이나 장애인들 역시 온열질환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자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폭염이 만연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자연재해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벼락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신성시하는 물신숭배(物神崇拜) 대상 중 하나였다. 하늘이 분노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외감은 벼락이 강한 기운을 담고 있어 악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미신으로 발전했다.

고려시대에는 벼락 맞은 물건이 복을 가져다준다는 미신이 있었다. 미신에 빠져 광신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의 얘기도 '고려사'에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

"1376년 우왕 2년 비가 내리는 한여름 날, 왕의 일가인 한천군 왕규와 그의 처 박 씨,

미신과 광신

어린 아들이 마당에 있던 벼락이 맞았다. 벼락이 맞은 집의 물건을 가져다 두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을 믿는 도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집의 안방과 창고에서 재물이나 그릇, 말과 소, 기왓장까지 뜯어 갔다. 집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가져갈 것이 없어지자, 심지어 숨이 붙어 있는 왕규와 박 씨의 사지를 잘라갔다. 소동이 일자 도당에서 병사를 파견해 재산을 되찾아 그 가족에게 돌려주었다."

벼락에 대한 미신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벼락 맞은 나무를 지니고 있거나

집이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집회 참석자는 물론 종교인들의 확인이 증가하면서 n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확진자나 검진 대상자들은 방역 당국이 검진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에 현혹돼 검진을 거부하거나 확진 후 도주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종교나 정치와는 무관한 질병의 원인일 뿐이다. 검진 회피는 종교인의 믿음이나 광신도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채희종 사회부장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